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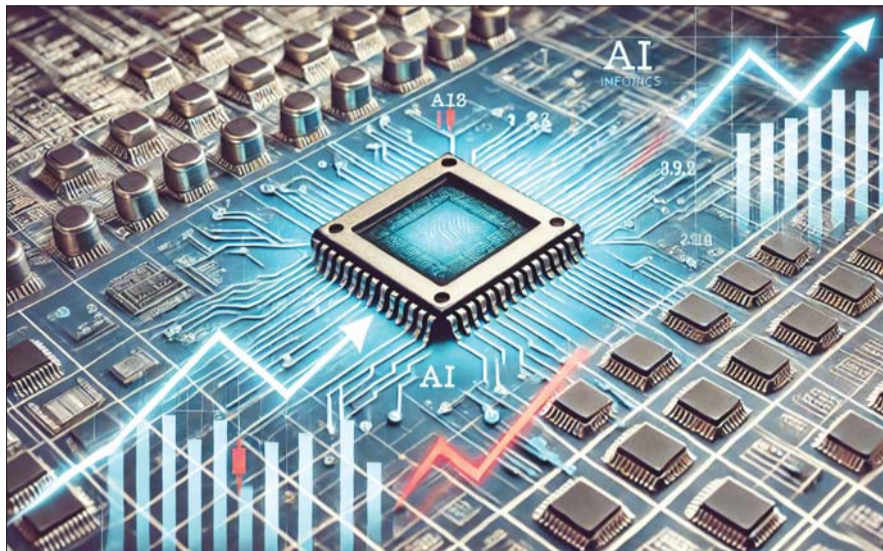
# 반도체 기업, 3분기 실적에 '희비'... AI 중심 양극화 심화

**삼성전자** 52주 최저가 경신  
**SK하이닉스** DS부문서 앞설 듯  
**ASML** 실적 쇼크에 기대감 '뚝'  
**TSMC** 깜짝실적... 9.79% 급등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증시에서는 ASML과 TSMC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반도체주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3분기 실적을 통해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수혜 여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오전 장 초반 5만8500원까지 하락하면서 52주 최저가를 경신했다. 지난 10일 기록했던 최저가인 5만8900원을 11일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 이날까지 4.06% 하락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19만900원으로 마감하며 지난 8월 폭락장의 여파를 거의 회복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8월 1일 19만3300원에 마감했다. 국내 반도체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반도체 기업들의 양극화' 이미지.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 겨울설'로 고전했지만, 실적 격차에 따라 상반되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액 79조원, 영업이익 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17.2%, 274.5% 증가한 수준이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

하면서 '실적 쇼크'로 평가됐다.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보다 감소함과 동시에 DS부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영향이 크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DS부문장)은 이례적으로 관련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두 기업은 특히 DS부문에서 성과가 같았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성과를 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 DS부문이 약 55억원 높았다. 하지만 3분기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가 약 1~2조원 앞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매출액 18조370억원, 영업이익 6조762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분기보다도 각각 9.8%, 23.7% 증가한 수준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양극화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 장비 기업 ASML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6%대 급락하기도 했다. ASML의 3분기 매출은 74억7000만유로(11조1100억원), 영업이익은 24억4000만유로(약 3조6300억원)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쇼크로 평가됐다. 3분기 예약 매출이 시장 예상치의 절반을 채우지 못했고, 내년 매출 가이던스도 절반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2025년 실적

기대감이 꺾인 것이다.

반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는 17일 '깜짝 실적'을 발표한 직후 9.79% 급등했다. TSMC의 3분기 매출액은 7596억9000만달러(약 1044조 4218억원), 영업이익은 3252억6000만달러(약 447조1674억원)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AI 반도체'를 선점한 SK하이닉스, TSMC 등이 선봉하는 모습이다. AI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분야별 격차가 벌어지면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도 희비가 갈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산업은 기술력과 전략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AI라는 거대한 물결에 잘 올라탄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운명이 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대응에 성공한 기업들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빅테크' 실적발표 코앞... 국내 운용사, '美 정조준' 글로벌 상품 출시

테슬라 등 '매그니피센트7' 실적발표 외화증권보유액 역대최대 기록 경신  
한투·미래에셋운용, 관련 ETF 상장

미국 증시 랠리의 중심에 섰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들의 실적이 빅테크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증가해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움직임도 덩달아 분주해지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매그니피센트7'의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 테슬라가 오는 23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 발표를 예고했고, 뒤이어 ▲아마존(24일) ▲알파벳(29일) ▲마이크로소프트(30일) ▲메타(30일) ▲애플(31일) 등이 실적 발표를 진행한다. 서학개미의 매수세가 강했던 엔비디아는 이보다 늦은 내달 14일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관련 이미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제조하는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지난 17일 호실적을 기록하며

트(30일) ▲메타(30일) ▲애플(31일) 등이 실적 발표를 진행한다. 서학개미의 매수세가 강했던 엔비디아는 이보다 늦은 내달 14일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제조하는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지난 17일 호실적을 기록하며

매그니피센트7과 같은 AI 관련 종목들의 실적도 상승세를 보일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테슬라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로보택시' 공개 여파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260달러까지 반등했던 테슬라 주가는 로보택시 행사 이후 18일 220.70달러까지 떨어졌다.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는 이유는 외화증권보유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외화증권은 1379억4000만 달러(약 189조원)를 기록하며 최대 규모를 보였다. 한국에 타결제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전 분기 말보다 8.3% 증가

했다. 외화주식이 1020억4000만 달러(139조2438억원)로 7.8%, 외화채권도 359억 달러(48조9963억원)로 9.8% 증가했다.

외화주식 결제액이 가장 많은 종목은 '디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세어즈 ETF'지만 변동성이 강한 탓에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빅테크 ETF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디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볼 3X 세어즈 ETF는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하루 변동 폭을 3배 추종하는 상품이다.

이에 국내자산운용사들은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2일 ACE 글로벌AI맞춤형반도체 상장

지수펀드(ETF)를 상장할 예정이다. 해당 ETF는 미국 및 대만 상장 주식 중 인공지능(AI) 맞춤형 반도체(ASIC) 설계 및 개발에 관련된 핵심종목을 선별해 투자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는 올해 ▲TIGER 글로벌온디바이스AI ETF ▲TIGER 글로벌AI인프라액티브 ETF ▲TIGER 미국AI반도체캡리스 ETF 등을 연이어 출시하며 AI관련 ETF에 주력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미국 쏠림 현상이 심해 사실상 미국 ETF"라며 "국내 ETF라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 상황이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

## 케이뱅크, 상장 철회에 시장침체 '우려'

높은 구주매출 비율 등 수요 예측 참패  
더본코리아에도 고평가 주장 제기

올해 최대어로 꼽혔던 케이뱅크가 수요 예측 실패로 결국 상장을 철회하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 증시 부진도 지속되고 있어 연말에 있을 대어급 기업들의 상장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18일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며 지난해 2월에 이어 다시 한번 상장을 연기했다. 높은 구주매출 비율과 상장 후 오버행(잠재적 대량 매도물량) 우려, 기업가치 고평가 논란, 업비트 자금 편중 부담 등으로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참패한 점이 원인으로 꼽힌

다. 시장에서도 케이뱅크의 수요 예측 실패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케이뱅크는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예비 심사까지 통과했다가 투자심리 위축을 이유로 상장을 연기한 바 있다.

케이뱅크가 상장 철회를 결정하면서 IPO 시장 내 투자위축 기조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IPO를 준비하고 있던 더본코리아, LG CNS, 서울보증보험 등 후발주자들도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코스피 시장 IPO를 위한 수요예측에 나선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역시 공모가 산정 기준을 두고 고평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구)은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본코리아 공모가 산정 방식

에 문제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IPO 과정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더본코리아가 공모가 산정 시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닌 CJ씨푸드, 대상, 풀무원, 신세계푸드 등과 같은 식품제조유통 전문 기업들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15.78배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또 상장할인율도 코스닥 상장 기업 평균인 최소 22.2%, 최대 36%에 훨씬 못 미치는 최소 8.09%, 최대 24.50%를 적용한 것도 지적했다. 더본코리아의 할인율은 최근 수요예측 부진으로 코스피 상장을 철회한 케이뱅크의 할인율(7.06~26.42%)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케이뱅크의 상장 철회보다 국내 증시 침체가 IPO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PO 철회는 개별 기업들의 사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관희 기자 wkh@

## 카카오페이증권 '주식모으기' 사용자 60만명

서비스 개편 1년 만의 '성과'

카카오페이증권이 '주식 모으기' 서비스 리뉴얼 1년 만에 사용자 60만명을 확보했다.

21일 카카오페이증권에 따르면 '주식 모으기' 서비스는 국내외 주식 중 원하는 종목을 사용자가 설정한 주문 주기와 단위에 따라 최소 1000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자동 구매해 주는 적립식 투자 형태이다. 주문 주기는 매일, 매주, 매월 중 선택할 수 있고 구매 금액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일부 해외주식은 소수점 투자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계좌에 구매 잔액이 부족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자동으로 충전해 주고 해외 주식 거래 시 원화 예수금을 자동으로 환전해 주는 등 다양한 편의 기능들

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2022년 4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출시와 함께 주식 모으기의 전신인 '자동 주문' 기능을 처음 선보였다. 이후 2023년 10월에 일일 주기 구매, 소수점 구매 등의 기능을 더해 소액 적립식 투자가 가능한 주식 모으기 서비스로 새로 출시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카카오페이증권 측은 "주식 모으기 서비스는 소규모의 종잡돈을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어 주식이 낯선 초보 사용자들도 부담 없이 시장에 접근해 꾸준한 투자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돕는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증권 주식 모으기 사용자 통계를 살펴보면 10월 중순 기준 구매 주기를 '매일'로 설정한 비율은 63.3%로 나타났다. /허정윤기자